

# 당뇨병환자에게 처방되는 고혈압 약

당뇨병환자의 70~80% 정도에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심혈관질환의 발생이나 그로인한 사망률이 더욱 더 증가한다.

따라서 혈압을 130/80mmH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 혈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제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당뇨병이 있는 고혈압환자에서 한 가지 약을 사용하여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2~3가지 이상의 고혈압 약제의 병용이 필요하다.

제 1차 약제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가 있다.

여러 임상 실험에서 이 약제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차 약제를 사용했는데도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2차적으로 병용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해야 한다. 당뇨병환자에게 2차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로는 칼슘차단제와 이뇨제가 있다.

1차 약제와 함께 칼슘차단제를 사용하면 신장기능이나 단백뇨를 악화 시키지 않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칼슘차단제를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단백뇨가 있는 당뇨병환자에서 신증을 악화시키므로 권하지 않고 2차적으로 병용할 수 있는 약제로 사용된다.

이뇨제는 당뇨병환자에서 우수한 심혈관질환의 감소효과가 입증되어 치료를 위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에 칼슘차단제나 이뇨제를 추가한 복합제들이 출시돼 복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반면 당뇨병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고혈압 약도 있다.

알파수용체차단제는 다른 고혈압 약제에 비해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당뇨병환자에게 초기에 사용되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 이차 약제로도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